



천재

박영목

정답 및 해설

#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B

# 4

## 문학의 갈래와 구조

### (1) 향수\_정지용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쪽

- 01 (1) ○ (2) × (3) ○ (4) ○ (5) ○      02 ⑤  
 03 ⑥      04 ⑦ – ⑥, ⑧ – ⑦, ⑨ – ⑩  
 05 유사한 통사 구조(‘~는/던 곳’)를 반복하는 것

- 01 (2) 고향을 회상하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02 화자는 고향에서의 정겨웠던 삶을 떠올리고 있지만, 과거 고향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반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2연의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 짐배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과 4연의 ‘사철 발 벗은 아내’, 5연의 ‘초라한 지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03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05 후렴구 외에 각 연에서 ‘~는/던 곳’이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X로 팩트 체크

본문 02쪽

- 02 화자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고향의 현재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도 않다.
- 04 3연의 ‘내 마음’을 통해 화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 05 시대 상황을 이겨 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09 후렴구는 연을 구분하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주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며,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1 2연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13 3연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이상과 동경을 그리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좌절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4~019쪽

- 1 ④      2 ①      3 ②      4 ③      5 ④  
 6 ⑤: 통일성, ⑥: 운율      7 ③      8 ③      9 ④  
 10 ②

- 1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묘사한 고향의 정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짐베개’ 등의 토속적 소재를 통해 평화롭고 아득한 고향의 향토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히 느끼게 하고 있다. ⑤ 각 연마다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2 이 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데 반해, <보기>는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현재의 고향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이 글은 어린 시절의 고향을 회상하고 있지만, <보기>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낯선 고향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특히 <보기>는 고향이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화자가 고향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끼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 3 2연을 통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노년의 서글픔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연에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접근을 통해 고향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3연에는 꿈과 이상을 쫓던 어린 시절의 화자의 순박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4연에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⑤ 5연에는 가난하지만 단란한 고향 집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4 <보기>에서는 문학 작품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 사용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은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이 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시상 전개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통해 고향이 삶의 균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5 ‘사철 발 벗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지만, 화자가 아내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지는 알 수 없다.

7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어린 시절 고향의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모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모습에서 얻는 삶에 대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 8 ‘파가운 햇살’에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금빛 계으른 옮음’은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 9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연과 연을 구분하며, 시상을 통일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후렴구의 반복과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상 전환은 관계가 없다.

- 10 2연에서는 겨울밤의 정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드러내고 있다.



- 1 ④      2 ⑤      3 ①      4 ④      5 ⑥  
 6 ⑥: 파이란 하늘빛, ⑦: 함부로 쓴 화살      7 ②      8 ③  
 9 가난      10 해설피 금빛 게으른 물음을 우는 곳,      11 ⑤  
 12 ③      13 머언      14 ⑦: 내마음, ⑧: 떠도는 구름  
 15 해설 참고

1 화자는 과거의 고향의 모습을 노래하며 그곳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와 그의 가족이 고단한 현실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5연의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시골 마을의 밤 분위기를 드러내므로, 모래성으로 외롭게 발을 옮기는 인물의 빛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이 글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①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작품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내리는 눈을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듬어 질 소리를 듣고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④ 고향 근처 주막에서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⑤ 의원의 손길에서 느끼는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4 ⑦은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한 표현이다. ④는 '고향의 소리가 은하수를 이루는'에서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을 사용하였고, '만나 봅시다'와 같이 청유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였다.

**오답 해설** ① 공감각적 심상(태양처럼 붉은 웃음소리 – 청각의 시각화)을 사용하였으나, 청유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지 않았다. ② 청유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였으나 후각적 심상(향긋한 들꽃 냄새)을 사용하였다. ③ 미각적 심상(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사용하였고 명령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였다. ⑥ 청유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였으나 청각적 심상(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을 사용하였다.

5 이 글은 ⑦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의 '아으 동동(動動)다리'는 악률에 맞추기 위해 의미 없이 삽입된 후렴구이다.

7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연을 구분하고, 시 전체에 통일성을 주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집약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⑤ 3연의 '내 마음'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8 3연의 시적 대상은 어린 시절(과거)의 화자이다.

11 ㄴ: (가)에서는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의 향토적 소재를, (나)에서는 '흰 점 꽃, 풀피리 소리' 등의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ㄷ: (가)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ㄹ: 수미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나)에만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12 (나)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자연과 대조되는 인간사로 인해 비애

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13 <보기>에서는 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비문법성을 말한다. (나)의 '머언'은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14 (나)의 3연의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적 방황을 드러낸 표현이다.

### 15 모범 답안

〈 보 기 〉	에	서	는	걸	으	로	드	러	나	는	운	울
을	찾	을	수	없	지	만	자	연	의	풍	광	고
신	식	률	을	나	열	하	는	것	을	통	해	내
을	느	낄	수	있	다.	.	또	한	산	을	오	르
과	정	에	서	본	풍	경	이	시	각	적,	.	,
청	각	적	.	심	상	을	통	해	생	생	하	게
있	.	.	.	즉,	운	을	과	심	상	이	느	껴
수	있	다.	.	서	정	갈	래	에	속	한	다	고

## (2) 종탑 아래에서 윤흥길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1~053쪽

- 01 (1) ○ (2) ✗ (3) ○ (4) ○ (5) ○      02 ⑤  
03 ④  
04 • 실제 지명: 익산 • 효과: 작품 속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하여 사실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05 (1) ○ (2) ○ (3) ○ (4) ○ (5) ✗      06 ④  
07 ⑦ – ⑧, ⑨ – ⑩, ⑪ – ⑫, ⑬ – ⑭      08 소녀  
09 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10 (1) ○ (2) ✗ (3) ○ (4) ○ (5) ○      11 ③  
12 ②      13 무지렁이, 바꾸  
14 (1) ○ (2) ○ (3) ○ (4) ○ (5) ✗      15 ①  
16 ④      17 ①  
18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봉사리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19 (1) ✗ (2) ○ (3) ○ (4) ○ (5) ○ (6) ○  
20 ⑤  
21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생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를 이기 시작했다.  
22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23 (1) ○ (2) ○ (3) ○ (4) ○ (5) ○ (6) ✗      24 ③  
25 ②      26 ④      27 종소리  
28 (1) ○ (2) ○ (3) ○ (4) ○ (5) ○ (6) ✗      29 ③  
30 ⑨ – ⑩, ⑪ – ⑫, ⑬ – ⑭      31 희희화  
32 (1) ○ (2) ○ (3) ○ (4) ✗ (5) ○      33 ⑤  
34 ①      35 ⑩: 동일시, ⑪: 종  
36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금방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37 (1) ○ (2) ✗ (3) ○ (4) ○ (5) ○ (6) ○      38 ①  
39 ②      40 ⑦: 아이들의 놀림감 ⑧: 아이들의 존경의 대상  
41 (1) ○ (2) ○ (3) ○ (4) ✗ (5) ○      42 ③  
43 (1) ⑨ (2) ⑩ (3) ⑪ (4) ⑫  
44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 보고 싶어.”  
45 동화 속의,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46 (1) ✗ (2) ○ (3) ○ (4) ○ (5) ○ (6) ○      47 ⑤  
48 ⑨: 아침, ⑩: 낮, ⑪: 밤      49 두 마리 딱따개비  
50 (1) ○ (2) ○ (3) ○ (4) ○ (5) ✗ (6) ○      51 ③  
52 ⑤      53 ③      54 ⑨ – ⑩, ⑪ – ⑫, ⑬ – ⑭

- 01 (2) ‘나’는 등·하굣길에 시청 담벼락에 붙은 벽보를 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결에 있던 아저씨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고 있다.  
02 액자 소설의 내부 이야기인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까우며, 서술자인 ‘나’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준다.  
오답 해설 ①, ②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③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03 ‘1.4 후퇴를 거쳐 전쟁은 ~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를 통해 한국 전쟁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전황 소식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어 있는 시청 앞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 주는 공간이지만, 시청과 벽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다.

- 05 (5) ‘나’는 예쁘장한 소녀가 눈뜬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놀라 달아나지만, 동시에 소녀에게 관심이 생겨 다음 날 다시 소녀를 찾아간다.  
06 ‘서울내기들은 제아무리 똑똑한 척해 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로 볼 때 ‘나’는 소녀의 행동과 말을 통해 서울 아이들을 얕잡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나’는 예쁘장한 소녀가 눈뜬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놀라 달아나지만, 동시에 소녀에게 관심이 생겨 다음 날 다시 소녀를 찾아간다.  
10 (2) ‘나’는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소녀의 질문에 대답하고 소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등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11 첫 만남에서 ‘나’는 소녀를 몰래 관찰하고 누구인지 묻는 소녀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도망가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소녀에게 공을 던져 주고 소녀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12 ⑤에는 외모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 나타난다.  
13 ‘나’는 소녀로 대표되는 서울 아이들에 대해 군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렁이(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잠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꾸(‘바보’의 방언)’라고 평가하고 있다.  
14 (5)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에게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로 볼 때 명은이 전황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나’는 소녀에게 “으쩌다가 그리코롬 당달봉사는 되야 뿐렀다 냐?”라며 궁금함을 참지 못한 채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서울 계집애의 그 새하얀 낯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그려잖아요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주일 학교 반사가 어린 제자들에게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할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나’가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중간 부분 줄거리’를 통해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에게 명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이 서울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17 명은이 눈이 멀게 된 이유가 전쟁과 관련된 것임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식을 명은에게 전넬 선물이라 생각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나’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⑦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나’는 명은이 눈이 먼 이유를 명은이 외할머니를 통해 들은 후, 자신이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19** (1)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밖을 다니지 못하는 명은이 전황 소식을 잘 모를 것이라 여기면서 이를 명은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하여 명은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나’는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며, 전황 소식이 명은에게 상처가 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20** 명은은 ‘나’가 자신의 기분을 모른 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야기를 그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도로 “과자 안 먹니?”라며 ‘나’의 말을 중단시키고 있다. 즉, 명은은 전쟁 이야기를 재미없어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21** 명은이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만해 달라고 요구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도 없이 과자를 먹는 ‘나’의 모습에서, 명은의 심리를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어리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 퇴원한 명은을 찾아간 ‘나’는 야원 명은이 전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 명은에 대한 ‘나’의 호감을 알 수 있다.

**23** (6) ‘나’는 명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아 철책 밖에서 명은을 몰래 지켜보았다.

**24** ‘나’는 관사를 빠져나오면서 다시는 명은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집에 거반 다다라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렸을 무렵이다.

**25** ‘나’가 명은에게 전황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명은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동시에 그러한 소식을 모르는 명은에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전해 주고 싶은 배려이다. 그러나 이는 명은이 외할머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을 잊고 하는 행동으로, 전쟁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는 ‘나’의 어리숙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26** ‘나’는 명은에게 자신이 전했던 전황 소식들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자신의 마음이 관사 언저리를 배회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명은이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과 동시에 명은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7** 종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명은과 그런 명은의 모습에 감동하는 ‘나’를 통해 명은과 ‘나’가 화해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8** (6) ‘나’가 딸고만이 아버지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입을 다문 것은 명은이 앞을 못 본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29**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에게 전쟁 이야기를 했던 ‘나’를 꾸짖는 듯하면서도 ‘나’가 다시 명은을 찾아와 주어 고마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시 찾아온 ‘나’가 명은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다. ②: 명은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며 화해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가 명은을 웃게 만든 것에 신이 나서 떠드는 모습을 통해 ‘나’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다. ④: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다가 명은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쳐 말을 멈추는데, 이는 ‘나’가 명은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0** 명은은 ‘나’에 대한 책임과 ‘나’가 다시 와 준 것에 대한 반가움

을, 명은이 외할머니는 자신의 당부를 지키지 않은 ‘나’를 꾸짖는 듯하면서도 명은을 다시 찾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다시 명은과 화해하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

**31** ‘줄 끝에 대룡대룡 매달려’, ‘양바듬한 모습’과 같은 표현을 통해 딸고만이 아버지를 희화화함으로써,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32** (4) ‘나’는 명은과 함께 주일 저녁에 신광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고서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명은과 약속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

**33** 딸고만이 아버지는 좋 치는 일이 거반 끝나 갈 무렵 자신을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 먹은 적 없는 아이들 중에 딱 한 명만 끌라 한 차례 총 줄을 잡아당기는 기회를 주곤 하였다.

**34** 백마는 종탑을 휘감고 올라간 칡넝쿨을 뜯어 먹다 종을 울리게 되었고, 종소리를 들은 성주는 기사를 별주고 백마를 구해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이를 통해 칡넝쿨이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6** 명은과 함께 주일 저녁에 신광 교회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굼벵이 걸음처럼 느리게 갔다는 것으로 보아, ‘나’가 명은과의 약속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2) ‘나’는 총 줄을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 딸고만이 아버지를 만나자 평소와 달리 최대한 허리를 급혀 예의바르게 인사를 한다.

**38** 딸고만이 아버지는 명은과 ‘나’에게 종의 마지막 줄을 잡아당길 기회를 주지 않고 종 치는 것을 끝내 버렸고, ‘나’는 그동안 딸고만이 아버지를 놀렸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39** ‘나’가 명은에게 “인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여.”라고 설명하는 것은 ‘나’가 종을 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신이 명은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는 판계가 없다.

**41** (4) ‘나’는 종을 치고 싶다는 명은의 부탁을 듣고 팔짝 뛰면서 명은의 청을 모질게 거절한다.

**42** 명은은 ‘나’에게 종을 치고 싶다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딸고만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교회 종을 칠 수 없어서 ‘나’는 명은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44** 앞이 보이지 않는 명은이 ‘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나’의 얼굴을 만져 보고 싶다고 한 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나’의 의미가 명은에게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45** 지난번에 ‘나’가 들려준 백마 이야기의 백마처럼, 명은 역시 자신이 직접 종을 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빌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46** (1) ‘나’는 종을 울려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어 하는 명은의 마음을 잘 알기에 명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승낙한다.

**47**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광 교회까지 출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라며 명은이 외할머니의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명은이 외할머니가 명은과 '나'가 종을 치러 가는 길을 직접 동행한 것은 아니다.

**48** 명은과 '나'는 예배가 없는 목요일 밤중에 만나 몰래 종을 치기로 하였다. 10에서는 약속 당일인 목요일의 '아침 - 낮 - 밤'의 시간 흐름을 빠르게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49** 종을 치는 줄에 매달린 명은과 '나'의 모습을 '두 마리 딱따개비'라고 표현함으로써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50** (5) 명은은 종을 치며 자신이 겪은 억울함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빈다가 눈물을 흘린다. 팔고만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사람은 '나'이며, '나'는 매타작으로부터 명은을 지켜 주기 위해 애쓴다.

**51** 팔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 종 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다가 밧줄에 함께 매달리게 된 것이다.

**52** 명은은 자신이 겪은 억울함과 슬픔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힘을 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명은이 소원을 빌 동안 팔고만이 아버지를 귀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빈 것은 '나'이다.

**53** 종소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바라는 명은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쟁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포의 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4쪽

**01**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 옛이야기를 하는 것이 외부 이야기이고, '나'와 명은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이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02** 서술자인 '나'의 내적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

**03** 선악의 대립 구도는 드러나지 않으며,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내용도 찾을 수 없다.

**04** '나'와 명은의 사건을 다른 내부 이야기에서는 시간순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7** '나'는 전쟁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명은의 반응을 처음에는 감동으로 오해했다.

**10** 팔고만이 아버지가 명은을 측은하게 여겼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나'는 명은이 종을 직접 치겠다는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명은이 직접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6~061쪽

- |                                |     |                               |     |          |
|--------------------------------|-----|-------------------------------|-----|----------|
| 1 ③                            | 2 ⑥ | 3 ①                           | 4 ③ | 5 섬멸, 궤멸 |
| 6 '나'에게 전황 이야기를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 7 ③                           |     |          |
| 8 ①                            |     | 9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사랑과 연민을 통해 치유된다 |     |          |
| 10 당달봉사                        |     |                               |     |          |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인 '나'가 사건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액자 소설의 내부 이야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②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구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명은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비극적인 결말을 임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종소리로 작품을 끝맺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⑤ 서술자는 주인공이자 작품 속 인물인 '나' 혼자뿐이다.

**2** (가)에서 '나'는 명은이 왜 화가 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명은의 반응을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다. 명은은 전쟁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로 인해 '나'의 이야기에 괴로워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명은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은이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다. ② '나'는 전황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명은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명은은 그것을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③ '나'는 전황 소식을 엉무새처럼 물어댈 뿐 전쟁의 참상을 명은이 공감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④ '나'가 명은에게 전하는 전황 소식은 '나'의 직접 경험 아니라 '나'가 벽보에서 본 내용들이다.

**3** 명은과 백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백마와 달리 명은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

**4** <보기>에 따르면 ⑦은 명은의 울음소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명은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소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팔고만이 아버지는 명은과 '나'를 말리려 함께 종을 치는 인물이므로, ⑦을 세 사람의 새 삶을 일깨워 주는 소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② <보기>의 '소녀의 울음소리'와 관련된다. ④ <보기>의 '공포와 원망과 절망의 철벽에 캄캄하게 갇혀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새 삶을 열어 가도록 이끄는 생명의 소리'와 관련된다. ⑤ <보기>의 '소녀의 슬픔을 깨안고 소녀와 함께 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관련된다.

**5** '섬멸, 궤멸'은 전쟁 상황에서 무수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인명 살상이 많이 발생하는 전쟁의 반생명성, 폭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7** <보기>에서 누구든지 종을 침으로써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을 통해, 명은이 앞을 보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고, 부모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종을 치고 싶어 함을 유추할 수 있다.

**8** ⑧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으로 '눈을 뜨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뜬소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⑧: 매우 급하거나 바빠서 몹시 서두르는 모양 ≠ 경충경충(긴 다리를 모으고 계속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⑨: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끈덕지고, 질기기 ≠ 애처롭게(가엾고 불쌍하여 마음이 슬프게) ⑩: 오똑 처든 모양 ≠ 기우뚱(불체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모양) ⑪: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 고공(높은 공중)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62~069쪽

- |                   |     |                |     |         |
|-------------------|-----|----------------|-----|---------|
| 1 ③               | 2 ① | 3 ④            | 4 ② | 5 해설 참고 |
| 6 ①               | 7 ⑤ | 8 ⑦: 구원, ⑨: 전쟁 | 9 ④ |         |
|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     |                |     |         |

**1** ⑩은 명은의 심리를 명은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⑪은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⑦에서 명은이 외할머니는 앞 뜻 보는 명은과 ‘나’가 밤마을을 간다는 것에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3** 중소리가 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은 (라)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것이 중소리의 실제 기능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라)의 침녕쿨에 대응되는 존재로, (라)를 통해 ‘나’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② (라)에서 백마가 침녕쿨을 먹다가 종을 치게 되는 것은 (바)에서 명은과 ‘나’가 함께 종을 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③ 종을 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서사적 맥락을 종이라는 일반적인 소재에 부여하고 있다. ⑤ 명은은 ‘나’에게 (라)를 들은 후 종을 쳐서 가슴에 맷힌 응어리를 풀고 싶어 한다.

**4** ⑩에서 ‘나’는 명은에게 전황 소식을 신이 나서 피들어 대고 있다.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의미하므로 ⑪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삼십육계(三十六計) 줄행랑을 놓다: 매우 급하게 도망을 치다. ③ 의 기양양(意氣揚揚):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④ 동상 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곁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땀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⑤ 주객전도(主客顛倒):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뀐을 이르는 말

### 5 도법 답안

명	온	은	전	쟁	으	로	부	모	님	을	잃	었	을	뿐
아	니	라	그	총	격	으	로	눈	이	머	는	등	직	
접	적	으	로	전	쟁	의	피	해	를	입	었	다	.	

**6** 한국 전쟁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아픔을 그린 점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부도덕성이 부각되는 모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전쟁의 충격으로 눈이 먼 소녀와 그 소녀를 도와주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보기〉의 ‘소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는 소년’과 ‘나’를 연관 짓을 수 있다. ④ 소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소년은 간접적으로 전황 소식을 전해 들었다. ⑤ 〈보기〉에서 어린 시절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전쟁에 대한 기억과 상처를 치유해 가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 준다고 했으므로, 중소리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명은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7**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 종 치는 것을 말리려 왔다가 의도치 않게 같이 종을 치게 된 것이므로, 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명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명은에게도 백마처럼 간절히 풀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⑩은 그 소원을 호소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드러난 행동이다.

### 10 도법 답안

명	온	은	역	율	한	사	람	온	누	구	든	지	증	을
쳐	서	자	신	의	사	연	을	호	소	할	수	있	다	고
한	부	분	예	관	심	을	보	일	것	이	다	.	.	.

### 11 도법 답안

⑧	는	필	요	가	없	다	고	버	립	반	온	역	율	한
존	재	로	명	은	과	대	옹	되	며,	⑯	는	백	마	를
증	으	로	인	도	하	는	역	할	을	하	는	존	재	로
‘	나	’	와	대	옹	된	다.	⑭	는	백	마	의	역	율
한	사	연	을	심	판	하	고	백	마	를	보	살	펴	주
는	인	물	로	하	나	님	을	의	미	한	다.	.	.	.

### (3) 두근두근 내 인생 \_김애란 원작 / 최민석 외 각본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3~089쪽

- 01 (1) ○ (2) ○ (3) ○ (4) ○ (5) ✗      02 ⑤  
03 ③      04 장면(scene)  
05 (1) ○ (2) ○ (3) ○ (4) ○ (5) ✗      06 ②  
07 ⑤      08 ③  
09 어느새 불그스레 희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다.  
10 (1) ○ (2) ○ (3) ○ (4) ✗ (5) ○      11 ④  
12 ⑦: 귀여운, ⑧: 농염한, ⑨: 청순한  
13 ⑩: 시력, ⑪: 사진  
14 (1) ○ (2) ○ (3) ○ (4) ○ (5) ✗      15 ④  
16 ④      17 ①      18 ⑤      19 ④  
20 ⑨, ⑩      21 ⑪: 따로따로, ⑫: 생생, ⑬: 일상적  
22 (1) ○ (2) ✗ (3) ○ (4) ○ (5) ○      23 ②  
24 ⑤      25 ⑪ - ⑫, ⑬ - ⑭, ⑮ - ⑯  
26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김정이라곤 없어 보인다.  
27 ④      28 ⑪, ⑫  
29 ⑦: 아름이 게임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⑨: 아름이 서하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30 대수와 아름이 게임기로 인해 다른 후이기 때문이다.  
31 (1) ○ (2) ○ (3) ✗ (4) ○ (5) ○      32 ①  
33 ④  
34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35 (1) ○ (2) ○ (3) ○ (4) ✗ (5) ○      36 ③  
37 ⑤      38 그리고 보니까 별은 뚩도 별이네. 39 시력

- 01 (5) 젊은 부모인 대수와 미라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1에서의 미라의 대사와 행동으로 볼 때 미라는 주위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2 윗글은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 중 발단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대단원 ② 전개 ③ 질정 ④ 하강
- 03 아름은 선천성 조로증으로 인해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많이 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라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름에게 당당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04 시나리오는 장면(scene) 단위로 구성된다.
- 05 (5) 아름은 서하가 보낸 편지를 받은 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성에 대한 설렘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 06 전자 우편을 보낸 서하는 아름처럼 자신도 아프다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서하는 ‘일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병으로 인해 극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시간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07 아름은 같은 나이의 소녀가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과

반가움을, “이서하?”라는 말에서 전자 우편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그리고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는 부분에서 이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은 느끼고 있지 않다.

- 08 ⑦을 통해 아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 왔으며, 긴 시간 동안 병원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 09 불그스레 희미해진 햇살이 창으로 스며드는 풍경은 시간적 배경이 해 질 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장면이다.
- 10 (4) 텔레비전 방송 연출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제안하자, 아름은 부모님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한다.
- 11 아름이 듣고 있는 서하의 목소리는 자신이 만들어 낸 환청이다. 실제로 들은 전자 우편만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름이 서하의 목소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12 아름은 자신에게 전자 우편을 보낸 서하에게 온통 신경과 관심이 집중된 상태로, 서하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은 적이 있지만 자신의 상상 속에서 서하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 14 (5) 아름이 사진 속 서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동을 통해, 아름이 서하가 보낸 사진을 보고 설레며 서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아름이 멀리는 손으로서 서하의 편지를 열어 보는 이유는, 서하에게 사진을 요청한 뒤에 오는 편지라 무척 긴장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라는 서하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아름이 사진 속 서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아름이 계속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설명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미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아름이 뒤적이며 전자 우편함을 계속 확인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 16 아름이 서하의 사진 위에 손을 포개며 맞잡은 것 같아지는 효과를 연출하지만 실제 아름과 서하가 만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부분에 뭉타주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 17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전자 우편을 보내자 서하는 손 사진만을 보냈다. 그렇지만 아름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는 기색은 찾을 수 없다.
- 18 ‘햇빛에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하.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를 통해 아름의 상상 속 모습에서 서하의 얼굴이 또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9 7에는 평범하고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인 아름이 서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나 자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 20 오솔길의 소년과 소녀는 아름과 서하로, 7은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바탕으로 상상한 풍경이다.
- 21 9에서는 뭉타주를 통해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순간의 장면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며, 아름이 일상적인 삶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2 (2) 아름은 서하에게 전자 우편을 받고, 이후 계속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하와 가까워진다. 그렇지만 아름과 서하가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다.

23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로 나열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다. 아름은 선천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24 아름은 서하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설렘을 느끼며 일상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서하의 정체를 알게 된 아름은 큰 상처를 받고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27 대수와 미라는 아름이 부모인 자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름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보이는 것이다.

28 게임기는, 아름이 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서하에게 받은 충격을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29 대수는 밥도 먹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서하의 정체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아름의 상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0 밥도 먹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름과 대수는 크게 다했다. 그리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서먹해하고 있는 것이다.

31 (3) 아름은 울음을 통해 서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슬픔,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 가족의 사랑에 대한 미안함 등을 표출한다.

32 아름이 흘린 눈물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픔과 분노, 서하로부터 받은 상처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대수와 미라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질투나 그로 인한 아픔과는 관련이 없다.

33 서하의 실체가 영화감독 지망생임을 알게 되었지만 아름이 “안녕…….”이라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은, 상상 속의 서하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 두고 싶기 때문이다.

34 아름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솔길을 뛰어간 이유는, 오랫동안 쌓여온 자신의 슬픔과 답답했던 심정을 분출하기 위해서이다.

35 (4) 아름은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대수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어 보인다.

36 아름은 대수와 함께 공원에 나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빈다. 이 소원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겼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37 대수는 아름의 건강을, 아름은 부모님의 행복을 소원으로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이 서하의 실체를 안 이후이므로, 서하를 만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아름을 즐겁게 해 주려는 대수의 유머러스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9 작품의 중반부에서 주치의는 아름의 실명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아름의 시점에서 암흑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은 아름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90쪽

02 ‘발단–전개–결정–하강–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03 아름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05 서하는 가공의 인물이다.

07 몽타주를 통해 아름이 살고 싶다고 느끼는 때를 보여 주고 있다.

09 대수와 미라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아름과 대수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13 극 갈래 중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대본이며, 회곡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이다.

14 극 갈래에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성격이 표현된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92~099쪽

- |     |     |     |       |     |
|-----|-----|-----|-------|-----|
| 1 ① | 2 ④ | 3 ① | 4 ①   | 5 ⑤ |
| 6 ① | 7 ① | 8 ④ | 9 몽타주 |     |

10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11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자유롭다.

12 해 질 녁

13 서하가 아름과 같은 또래이기 때문이다. / 서하도 아름처럼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14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서하에게 받은 충격을 표출하는 대상이다. / 아름이 대수와 갈등을 겪게 되는 표면적 원인이다.

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영화 촬영을 위한 대본이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은 희곡이다.

2 미라는 아름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으며, 아름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3 미라는 아름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므로, 아름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서하는 방송에 출연한 아름과 그 가족을 보고 아름의 부모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나)의 주치의의 대사(“아름이가 계속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실명을 …….”)를 통해 아름이 시력을 완전히 잃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바)에서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아름의 목소리와 함께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지도록 하고 있다.

6 ①은 아름과 대수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로 나열한 순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볼 때’에 해당한다. ③ ‘푸른 하늘의 하얀 둥개구름을 볼 때’에 해당한다. ④ ‘트랩풀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에 해당한다. ⑤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 주며 친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 해당한다.

7 ⑦에서는 아름과 서하의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해야 하므로,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의 음악이 가장 적절하다.

8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을 의미하는 것은 ‘음향’이다. ‘음영’은 ‘어두운 부분’을 의미한다.

5 계단 아래에 앉은 대수와 미라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하면, 아름의 속내를 알게 된 대수와 미라의 깊은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⑨은 아름과 대수가 같등한 후의 일이지만, 아름이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하는 미라의 모습으로 볼 때 미라가 화가 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7 도법 답안

( 가 ) 에 는	게	임	에	열	중	하	던	아	름	과
이	를	말	리	던	대	수	의	외	적	같
나	있	다.		같	등	의	표	면	적	등
의	과	도	한	게	임	몰	두	이	지	이
원	인	은	서	하	의	체	를	알	고	면
과	상	처	처	로	인	한	아	를	의	적
다.										

9 이 글의 주인공은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름이다.

10 ㄱ: 아름은 대수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ㄴ: 아름이 공원의 오솔길을 뛰어간 상황이므로 거친 호흡을 내쉬어야 한다. ㄹ: 서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슬픔,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감정 등이 울음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답 해설** ㄷ: 답답한 심정을 분출하며 갈등이 해소되는 정면이므로 서먹함이 남아 있는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 ㅁ: 울음을 애써 참는 연기는 ‘울음이 완전히 터진 체로’라는 지시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 11 도법 답안

< 보	기	〉	에	서	는	서	술	자	인	‘나 ( 아 름 ) ’
가	서	하	의	편	지	내	용	과	그	편
았	을	때	자	신	의	생	각	,	감	지
세	하	게	서	술	하	고	있	다.	정	를
로	각	색	하	면	서	서	술	자	등	자
며,	서	하	의	목	소	리	가	환	장	나
것	으	로	설	정	하	여	편	청	하	으
흔	란	스	러	위	하	는	아	으	지	으
있	다.									

## 12 도법 답안

⑦	을	통	해	힘	든	상	황	에	서	도	긍	정	적	이
고	당	당	한	미	라	의	성	격	을	알	수	있	다.	.
또	한	투	병	종	인	아	름	에	게	용	기	와	기	운
을	복	돌	아	주	려	는	마	음	을	알	수	있	다.	.

## 13 도법 답안

⑧	에	는	서	하	의	편	지	를	기	다	리	는	아	름
의	초	조	한	심	리	가	드	러	나	있	다.	그	리	.
고	⑨	에	서	는	서	하	의	편	지	를	받	고	아	름
의	심	리	가	긴	장	감	과	기	대	감	으	로	바	꿔
있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00~109쪽

1 ③ 2 ⑤ 3 ④ 4 서하의 편지 5 ⑤

6 ③ 7 해설 참고

8 조로증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의 삶에 대한 소망과 가족 간의 사랑

9 ① 10 ②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13 해설 참고

1 <보기>는 소설로 서술자인 ‘나’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반면, (나)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2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은 내레이션이다. ⑨은 효과음에 해당한다.

3 ⑨는 아픈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아름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 것을 의아해하고 있으므로, 아름이 서하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수오재기\_정약용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13~115쪽

01 (1) ○ (2) ✗ (3) ○ (4) ✗ (5) ○ (6) ○ 02 ①

03 ⑤

04 ⑦: 지킬 필요가 없음. ⑧: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지켜야 함.

05 (1) ○ (2) ○ (3) ✗ (4) ○ (5) ○ 06 ②

07 ⑧: 이해, ⑨: <수오재기> 08 ⑦: 본질적, ⑨: 본분

09 ⑦: 현상적 자아, ⑨: 본질적 자아

01 (2) 글쓴이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기록하기 위해 쓴 글이다. (4) 수오재는 글쓴이의 큰형님의 서재의 이름이다.

02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문답법과 열거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천하 만물과 ‘나’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찾은 후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 그러니 꽁꽁 묶고 자루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글쓴이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며, 인간의 마음이 쉽게 혼들릴 수 있는 유혹이나 위험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즉, ‘나’는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고 하였다.

04 천하 만물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으나, ‘나’는 쉽게 떠나갈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했다.

05 (3) 글쓴이의 둘째 형님은 ‘나’를 잊고 남해의 섬으로 귀양을 갔으며, 큰형님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켰다.

06 글쓴이는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이 글을 지었으며 복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글쓴이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한 기간은 10년이다. ④ 글쓴이의 둘째 형님은 남해의 섬으로 귀양을 갔다. ⑤ 글쓴이는 벼슬아치를 하는 12년 동안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녔다고 했다.

07 글쓴이는 귀양을 가기 전에는 큰형님이 서재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귀양살이를 하면서 ‘수오(守偽)’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깨달음의 내용을 담은 <수오재기>를 써서 그 기분으로 삼고 있다.

09 글쓴이는 참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인 상황에 빠져 올바른 정신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잊었다고 했다. 이로 볼 때 ⑦은 현상적 자아, ⑨은 본질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116쪽

04 글쓴이의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언급되고는 있지만, 글쓴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글쓴이 자신의 삶이다.

06 글쓴이는 예전에 큰형님이 서재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09 글쓴이는 과거 시험과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자신을 간수하지 못하였다.

11 또 다른 자아인 ‘나’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통해 벼슬길에 아직 미련이 남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18~123쪽

1 ① 2 ① 3 ④ 4 ③ 5 ⑤

6 밭, 집, 꽃나무, 과실나무, 책, 옷, 양식

7 이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8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잡다한 일에 빠지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9 ③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15 과거 시험 공부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바빠 지나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 큰형님의 삶을 기린 것이 아니라 큰형님의 서재의 이름인 ‘수오재’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2 천하 만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키고 있지 않다.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⑤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감탄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지 그 주장을 직접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3 글쓴이는 현상적인 자아에 패물되어 본질적인 자아를 잊어버린 모습을 반성하면서 ‘나’의 본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⑦는 사람의 마음이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간사스럽게 변함을 이르는 말이고, ⑨는 마음이 요연스럽게 변함을 이르는 말로, 둘다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속담이다. 이는 달아나기를 잘하는 ‘나’의 속성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⑦: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여 좋으나, 무엇이나 좀 알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많아 도리어 해롭다는 말 ⑨: 무슨 일이나 오래 해 온 사람은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점을성이 많고 마음이 굳다는 말 ⑩: 마음을 바르게 쓰면 신명(神明)도 알아 보실핀다는 말

5 ‘나’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진지한 자세로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울리한다는 의미이다.

- 6** 글쓴이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 9** 이 글은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실학자로서의 글쓴이의 자긍심과는 거리가 멀다.
- 10** ①에는 ‘나’를 읽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하며, 이는 자기 삶에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별과 같은 재산은 지켜야 할 ‘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③은 의문의 해소를 핵심으로 삼은 ‘승’(‘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11** ⑦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⑤는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이므로 ⑦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①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② 아첨하는 말과 일상거리는 태도 ③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를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④ 맷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 12**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또 다른 자아인 ‘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13** ⑩는 현상적 자아를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⑧, ⑨, ⑩은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24~131쪽

- |     |     |     |     |          |
|-----|-----|-----|-----|----------|
| 1 ⑥ | 2 ⑤ | 3 ⑤ | 4 ① | 5 본질적 자아 |
|-----|-----|-----|-----|----------|
- 6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으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④ 12 어렸을 때는 과거,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13 없애거나 떠나갈 수 있는가? / 대체 가능성이 있는가?  
14 해설 참고 15 해설 참고 16 최후(最後)의 나 17 해설 참고

- 1** 처음에 글쓴이는 ‘수오재’라는 큰형님의 서재의 이름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글쓴이는 외부로부터 격리된 귀양지에 와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수오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 2**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잊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를 통해 글쓴이의 둘째 형님 역시 현재 귀양 가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3** ⑩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철저하게 수양하여 ‘나’를 굳게 지켜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⑦: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그 이유를 열거법, 문답법, 설의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⑩: 인간의 마음은 유혹이나 위험에 쉽게 흔들림을 열거법과 예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4** 글쓴이가 큰형님, 둘째 형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형제간의 우애로 역경을 극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7** 이 글은 한문 수필이다. <보기>에서 수필은 글쓴이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본질적 자아(⑩)를 정화해야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⑤ 현상적 자아(⑩)는 세상의 여러 유혹에 빠져들기 쉬우며 본질적 자아(⑩)를 잊어버려 서로 분리될 수도 있다. ④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본질적 자아(⑩)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9** (라)는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자문(自問)을 통한 성찰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 [A]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천하 만물과 굳게 지켜야 하는 ‘나’를 대조하고 있으며, 천하 만물과 ‘나’의 특성을 설명할 때는 문답법과 열거법도 사용하고 있다. ③에서도 민화와 정통 회화를 대조하며 민화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에는 정의, ④에는 묘사, ⑥에는 인용이 사용되었다.

**11** (마)에서 유독 큰형님만이 ‘나’를 잊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아버지께서 ‘수오재’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큰형님의 자를 태현(太玄)으로 지어 주셨으며, 서재 이름을 ‘수오재’라고 지은 것은 큰형님 자신이다.

오답 해설 ⑧, ⑩: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⑩: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⑩: (마)를 통해 알 수 있다.

**12** 글쓴이는 10년간은 과거 시험 공부에 빠져 있었고, 12년간은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바빠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 못했다.

### 14 도법 답안

이	글	온	당	파	싸	움	에	의	해	유	배	를
가	는	인	물	이	많	았	던	시	기	에	청	작
으	로	,	글	쓴	이	가	자	아	성	찰	을	중
자	자	신	의	삶	을	되	돌	아	보	는	유	심
의	특	정	을	잘	보	여	주	고	있	배	문	으
의	정	을	잘	보	여	주	고	있	다	문	학	.

### 15 도법 답안

‘수	오	재	’	는	‘	나	를	지	키	는	집	’	이	라
뜻	인	데	.	‘	나	’	라	는	존	재	는	나	와	
단	단	히	맺	어	져	서	로	떠	날	수	없	는	존	
재	이	드	로	글	이	지	키	지	않	아	도	된	다	고
여	겼	기	때	문	이	다								

**16** ⑩은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보기>의 ‘최후(最後)의 나’는 내면적 자아로 현상적 자아를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또 하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 17 도법 답안

천	하	만	물	온	다	른	사	람	이	가	져	갈	수
없	거	나	없	어	져	도	대	체	할	수	있	기	때
에	지	킬	필	요	가	없	지	만	,	‘	나	’	달
아	나	기	를	잘	하	며	출	입	이	무	상	하	번
떠	나	가	면	돌	아	을	줄	을	모	르	기	때	문
글	게	지	켜	야	한	다							

# 5

## 매체와 설득

### (1) 매체 자료 바로 읽기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37~139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④  
 03 ① 04 의도 05 (1) ○ (2) ○ (3) ○ (4) ×  
 06 ④ 07 ④ 08 ⑦ – ⑨, ⑩ – ⑪, ⑫ – ⑬  
 09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  
 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읽는다.

- 01 (5) 동일한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만드는 이의 관점과 의도  
 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 02 매체 자료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03 이 글의 광고를 만든 이는 자사의 카드 회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  
 를 지니고 있다.
- 05 (4)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에 편견  
 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편견이 담긴 매  
 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06 달빛카드 광고는 행복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 과  
 소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달빛카드를 써야만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점에서, 그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의 안녕이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 07 기사를 쓴 의도가 다르다는 것은 표제인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 로 팩트 체크

본문 140쪽

- 03 인터넷 게시판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 04 신문과 텔레비전은 정보가 일방향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정보  
 의 전달 방향이 동일하다.
- 08 광고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광고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 09 공익 광고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이다.

- 12 기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42~149쪽

- 1 ② 2 ④ 3 ⑤ 4 ②  
 5 ⑦: 관점, ⑧: 의도 6 ② 7 ⑤ 8 ③

9 〈보기〉의 광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환경 보호이다. 이 광고와  
 달리 〈보기〉와 같은 공익 광고의 목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 10 ② 11 ④ 12 ① 13 ⑦: 표제, ⑧: 본문

14 (가)는 국립 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고, (나)는 국립 공원 케이블카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다. 15 ⑤

- 16 인쇄 매체: ①, ④ / 방송 매체: ⑤, ⑧ / 인터넷 매체: ②, ⑨

17 다인종, 다문화를 존중하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 특정 개  
 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 1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항상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  
 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③ 신문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인  
 터넷은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④ 현대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거의  
 매체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매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2 책,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와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  
 체가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것과 달리,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  
 체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 3 매체 자료를 이해하는 관점은 수용자마다 다르므로, 관점이 자  
 신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와 같이  
 매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②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모든 정  
 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변별력 있게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 4 〈보기〉의 사람은 눈이 충혈되고 혀가 나와 있으며, 몸이 구부정  
 하게 앞으로 쏠려 있다.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을 빼앗겨 멍하  
 보이며, 마치 텔레비전에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텔레비전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텔레비전에 조종당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  
 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5 〈보기〉: 광고 문구인 ‘쓸수록 커지는 행복!’을 통해 소비와 행복이 비  
 례적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상점을 배경으로 하여 카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보기〉: 이 광고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소비를 한 상황에서 활짝 웃고 있다.  
 소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다. 〈보기〉: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모  
 습을 보여 준 것은 맞지만, 이 광고는 상업 광고이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  
 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7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자사의 카드 회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행복의 매개체가 달빛카드를 통한 소비라는 점으로 볼 때 가족의 행복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이 광고와 〈보기〉 모두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광고와 〈보기〉 모두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이다. ② 이 광고와 〈보기〉 모두 단순하게 문구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이 광고는 상업 광고이므로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⑤ 이 광고는 상업 광고이지만, 〈보기〉는 공익 광고이다.

10 〈보기〉를 통해 신문 기사는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만드는 이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나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 배제되어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만드는 것은 객관적 보도에 해당하므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사로 볼 수 없다.

11 가는 기업의 측면에서, 나는 시민들의 측면에서 작성된 표제이다. 따라서 거시적, 미시적인 접근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사진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2 이 글의 매체는 신문(인쇄 매체)이고, 〈보기〉의 매체는 텔레비전(방송 매체)이다. 신문과 텔레비전의 공통점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인데, 신문사 혹은 방송사인 제작자 측에서 독자 또는 시청자인 수용자 측으로 정보가 일방향으로 전달된다.

【오답 해설】 ② 인쇄물을 통해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인쇄 매체인 신문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실시간으로 정보의 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④ 방송 매체인 텔레비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신문에서는 소리나 영상 등이 사용될 수 없다. ⑤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광고는 매체에 따라 인쇄 광고, 음성 광고, 영상 광고, 인터넷 광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인쇄 광고, 음성 광고, 영상 광고는 수용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다. 수용자와 생산자가 동일해질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광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광고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내레이션과 마지막 장면의 자막에서 알 수 있듯이, 웃이 바뀌는 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바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보다 내면의 자신감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광고는 영상 광고로, 방송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방송 매체는 음성과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ㄴ)하며, 정보의 전달 방식이 일방적이고 일시적(ㄹ)이다.

【오답 해설】 그, 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실시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다.

3 ④는 이 광고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이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평가이다.

4 그: (가)에서는 ○○산 전경, (나)에서는 국립 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진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디: 표제를 통해 (가)에서는 ○○산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나)에서는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ㄹ: (가)에서는 도 관계자, (나)에서는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가)에서는 ○○산의 주요 현황을 통계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나)에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ㅁ: (가)와 (나) 모두 현 상황의 실태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5 (가)에서는 ○○산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면 △△시와 □□도가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6 도법 답안

( 가 ) 는 생태적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하
고 있으며, ○○산 국립 공원 지정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나)
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산 국립
공원 지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 고 보고 있
있다. (가), (나) 모두 한 가지	관점에 치우쳐 다른 관점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는 독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살필 수 있게 하기 보
다는 한 쪽의 입장에 치우쳐 문제를 인	식하게 할 수 있다.

7 그런 포인트 제도는 국립 공원 지정 후 생길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므로, 국립 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만한 제도이다.

【오답 해설】 ②: 국립 공원은 공공재인데 그 토지의 많은 비율이 개인 사유지라는 것은 주후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어떻게 보상할지,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③: 지자체가 개인 사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에서 국립 공원 지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

8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광고는 좋은 광고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을 혼혹하는 광고는 좋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50~159쪽

1 ②      2 ④      3 ④      4 ②      5 ②

6 해설 참고    7 ②    8 ④    9 ⑤    10 ④

11 신문 기사를 쓴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12 ④

13 해설 참고    14 해설 참고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9** 위의 그림은 평온하게 피리를 불고 있는 소년의 그림(마네, <피리 부는 소년>)이고, 아래의 그림은 한 사람이 절규하고 있는 그림(몽크, <절규>)이다. 아래층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 층간 소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도의 공의 광고이므로, 제목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아래층에서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이 소외된 이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③ 포스터에서 유명한 예술 작품을 활용하고 있을 뿐, 예술의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환경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④는 신문 기사 언급한 내용이 아니며, 1인 가구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른 가구 형태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퍼센트에서 2015년 27.2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12** 제도의 시행 전, 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배려가 부족한 삶의 모습들만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 13 모범 답안

이	광	고	는	상	품	이	나	서	비	스	에	대	한
정	보	를	여	러	가	지	매	체	를	통	하	여	소
자	에	게	널	리	알	려	서	그	것	을	구	매	하
설	들	하	는	상	업	광	고	이	다			도	록

### 14 모범 답안

이	광	고	의	공	극	적	인	의	도	는	자	사	의
카	드	회	원	수	를	늘	리	려	는	것	이	다	.
입	한	물	건	을	들	고	행	복	한	듯	웃	는	가
족	의	모	습	은	사	람	들	로	하	여	금	행	복
대	해	잘	못	된	인	식	을	갖	게	할	수	있	고
들	빛	카	드	를	써	야	만	행	복	해	진	다	는
역	시	과	소	비	를	조	장	할	수	있	다	.	따
서	이	광	고	의	관	점	과	표	현	방	법	은	적
절	하	지	않	다	,								

### 15 모범 답안

(	가	)	는	○	○	시	의	입	장	과	대	책	은	소
개	한	반	면	상	인	들	의	관	점	은	소	개	하	지
않	고	있	다	.	즉	,	○	○	시	를	대	변	하	는
입	장	이	다	.	한	편	(	나	)	는	○	○	시	의
책	에	반	발	하	는	상	인	들	의	입	장	을	소	개
고	있	다	.	즉	,	상	인	들	을	대	변	하	며	○
○	시	를	비	판	하	는	입	장	이	다				

### 16 모범 답안

매	체	자	료	는	사	실	을	있	는	그	대	로	전
달	하	는	것	이	아	니	라	생	산	자	자	신	의
관	점	으	로	편	집	하	고	제	작	한	결	과	이
매	체	자	료	에	담	긴	관	점	이	나	의	도	표
현	방	법	이	문	제	가	있	을	수	있	음	을	인
식	하	고	비	판	적	으	로	읽	어	야	한	다	.

### (2) 설득하는 글 쓰기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63쪽

- 01 (1) ○ (2) ○ (3) × (4) ○ (5) ○ (6) ○ 02 ⑤  
03 ①, ② 04 ① 05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01 (3) 화장실에서 소비되는 엄청난 양의 휴지를 근거로 손수건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은 펼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① 휴지와 전기의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손수건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② 손 건조기의 소비 전력이 매우 크다는 시민 단체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③, ④ 손 건조기를 통해 세균이 옮겨질 수도 있음을 근거로 들어, 당장 습관을 바꾸기 어려울지라도 손수건을 사용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⑤ 폐지를 원료로 만든 휴지 가운데 형광 증백제가 검출되었다는 뉴스 보도(②), 손 건조기 사용의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③)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04 이 글에는 영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글쓴이는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문 조사로 얻은 통계 자료(④), 시민 단체가 조사한 손 건조기 실태 조사(⑤), 화장지에서 형광 증백제가 검출되었다는 뉴스 보도(②), 손 건조기 사용의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③)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05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면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손수건을 사용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의 속담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164쪽

04 글쓴이의 경험을 솔직하게 제시하였다.

05 손 건조기의 소비 전력을 보여 줄 뿐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않다.

06 손수건 사용의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07 세 학급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08 시민 단체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했을 뿐 글쓴이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09 손 건조기의 평균 소비 전력은 538와트이고, 냉방기의 평균 소비 전력은 600~700와트이다.

14 예상 독자의 수준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66~171쪽

1 ②      2 ②      3 ⑤      4 ⑤      5 ⑥

6 ①      7 ②      8 ⑤      9 ⑦: 주장, ⑧: 설득

10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11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동참해야 한다.

12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실을 이용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학생들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다.

13 1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강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1 이 글은 논설문이다. 어떤 사물이나 지식을 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쓰는 글은 설명문이다.

2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의도로 글을 쓴 것이지 독자의 배경지식을 넓히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3 ‘고친 후’에는 ‘고치기 전’에 제시된 내용 앞에 ‘영국 리즈 대학의 마크 월콕스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과 같이 출처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권리,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오답 해설** ② 근거에 과학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글을 고친 것은 아니다. ③ 고치기 전, 후 모두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은 없다.

4 휴지와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을 쓰는 목적에 해당한다. ②, ④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 자료, 전문가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세 학급 1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5 독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손수건 사용의 장점(예: 교실의 쓰레기 를 줄일 수 있다. 휴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덜 베게 된다.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독자만 초등학생으로 바뀐 것일 뿐 주제 의식은 동일하므로 손수건 사용의 단점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② 연구의 원문을 인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를 뛰어넘은 것이다. ③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를 뛰어넘은 것이다. ④ 전 국민적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6 ⑦은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친다.’라는 뜻이다. ①의 ‘퍼지다’도 ⑦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② 끊어거나 삶은 것이 불어서 커지거나 잘 익다. ③ 끝 쪽으로 가면서 점점 굵거나 넓적하게 벌어지다. ④ 지치거나 힘이 없어 몸이 늘어지다. ⑤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이 살이 찌서 가로 벌어지다.

7 ‘등고자비(登高自卑)’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힘을 이르는 말이다. ⑦은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므로 ‘등고자비’와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머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겁에 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④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⑤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옮아 둑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옮겨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글쓴이는 별 생각 없이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③과 같은 공익 광고를 본 것이다. 따라서 ③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 광고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⑤이다.

**오답 해설** ①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②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③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④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을 달지 말자는 내용이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72~179쪽

1 ②      2 ①      3 ①      4 ④      5 ④

6 요즘 사람 대부분은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 휴지와 손 건조기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7 ⑦: ㄱ, ㄷ, ⑧: ㄴ, ㄹ

8 ⑦에는 인용이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공익 광고의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9 해설 참고

10 ②      11 ④      12 ②      13 ③      14 ⑤

15 ⑦: 주제, ⑧: (예상) 독자 16 ⑤

17 예상 독자의 특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 /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 근거는 정확하고 풍부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18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경계하자. 19 해설 참고

1 ㄱ: (라)에서 마크 월콕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ㄷ: 화장실에서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공익 광고를 본 경험을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ㄴ: 과학적 용어의 개념은 제시되지 않았다. ㄹ: 대상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3 (라)에서,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 손에 있는 세균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고 이 세균이 상당한 시간 동안 주변에 그대로 머무른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② 형광 증백제가 어떤 암을 일으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냉방기의 소비 전력이 보통 600~700와트라는 것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마다 얼마나 증가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횟수가 더 많은 집단이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일부 휴지 종 형광 증백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보기>는 휴지에 포함되어 있는 형광 증백제가 신체에 유해한 결과를 미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이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휴지에서 형광 증백제가 검출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한 (라)이다.

5 ⑧는 ‘화학 분석에서, 시료(試料) 속에 있는 화학종이나 미생물 따위의 존재 유무를 알아내는 일’이다.

<보기>	에	서	는	손	수	건	을	사	용	하	면	자
원	부	족	문	제	를	완	전	히	해	결	하	고
질	병	을	철	저	히	예	방	할	수	있	다	고
는	데,		이	는		과	장	된	표	현	이	다.
표	현	은	사	실	을	왜	곡	하	는	것	으	로
게	거	부	감	을	주	거	나	잘	못	된	인	식
게	할	수	있	기	때	문	에,	글	쓰	이	가	<
보	기	)	를	(	과	같	이	고	친	것	이	.

10 이 개요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쓸 수 있는데,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다. 그런데 청소기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주제를 통해 설득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③ 건의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쓰는 글로,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11 ‘청소년 소비문화,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개인적 측면에 한정하여 근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즉, 본론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현명한 성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인적 측면의 효과이지만, ‘사회적 갈등 예방’이나 ‘자원 낭비를 줄임.’과 같은 내용은 사회적 측면의 효과이다.

오답 해설 ① 서론에서 청소년들의 소비문화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서론에서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소비문화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12 본론에는 ‘청소년 소비문화,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의도로 소비를 한다는 측면을 언급하면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근거와 관련이 있다. ③, ④ 두 번째 근거와 관련이 있다. ⑤ 세 번째 근거와 관련이 있다.

13 <보기>는 오늘날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등 쓰기 활동의 파급력이 매우 커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14 주목을 끌기 위해 제목을 과장해서 쓰면 안 된다.

16 ⑦은 알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 정보를 타인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 및 이용 제한)를 치켜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잊힐 권리(정보의 존속권)를 주장하는 입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인	터	넷	매	체	는	정	보	의	전	달	및	교	환
이	쌍	방	향	으	로	이	루	어	진	다.	또	한	누
나	쉽	게	인	터	넷	매	체	를	통	해	글	쓰	기
하	며	다	른	사	람	들	과	소	통	할	수	있	기
때	문	에	파	급	력	이	매	우	크	다.	따	라	서
인	터	넷	매	체	를	기	반	으	로	한	글	쓰	기
활	때	에	는	타	당	성,	신	되	성,	공	정	성	
등	에	유	의	하	여	글	을	써	야	한	다.		

01 ⑤ 02 ⑤

03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의미한다.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③ 09 ②

10 ② 11 ③

12 미라는 아픈 아름에게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라가 긍정적이고 당당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3 ①

14 ③ 15 수오

01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을 통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향의 모습은 알 수 있지만, 후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옛이야기’ 자줄대는 실개천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질화로’, ‘짚베개’와 같은 향토적 소재가 사용되었다. ③ ‘파아란’에서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 ④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에서 역동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2 ‘초라한 지붕’이 화자의 가난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은 맞지만, 가난 속에서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오순도순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절망감이 부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흐릿한 불빛’이라고 했으므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을 맺는 게 더 자연스럽다.

04 ⑤는 청각(율음)을 시각(금빛)으로 표현했으므로,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④, ⑤: 청각적 심상 ⑥: 시각적 심상 ⑦: 촉각적 심상

05 명은과 딸고만이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고 ‘나’의 내면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장면이 빈번히 전환되고 있지 않다. ②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와 명은이 종 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이를 인물 간의 대결 의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작품 속 인물로 명은과 함께 이 글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06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치는 ‘나’와 명은을 말리기 위해 종에 매달린 것으로, 명은이 종을 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볼 수 없다.

07 ⑦은 종을 치며 ‘나’가 빈 소원으로, ‘나’가 아닌 명은을 위한 소원에 해당한다.

08 ⑧은 전쟁의 총성과 대비되는 평화의 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전쟁 상황을 상징한다고는 볼 수 없다.

09 희곡은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많고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반면, 시나리오는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없고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다.

10 (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아름과 이에 신경 쓰지 않고 아름에게 용기를 주는 미라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아름은 자신을 힐끗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하며 창피해한다. ③, ④ (나)에서 아름은 서하의 편지를 받고 서하에 대해 궁금해하며 설렘을 느끼고 있다. ⑤ (다)에서 아름은 환청으로 서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11 ⑦의 ‘일’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아픈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한다. 즉, 서하가 그런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름으로 하여금 같은 처지의 서하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13 매사에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4 글쓴이가 학문에 빠져 지낸 것은 벼슬아치가 되기 전의 일로,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찾았다.

15 글쓴이의 큰형님은 ‘나’를 잊지 않았으며,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지었다.

## 2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86~190쪽

- |               |                                |      |        |      |
|---------------|--------------------------------|------|--------|------|
| 01 ④          | 02 ⑤                           | 03 ⑥ | 04 인터넷 | 05 ③ |
| 06 ⑤          | 07 해설 참고                       | 08 ④ | 09 ④   |      |
| 10 표제, 본문, 사진 | 11 ②                           | 12 ⑤ | 13 ②   |      |
| 14 ④          | 15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 건강에 도움이 된다. |      |        |      |

01 인터넷은 정보의 전달 방향이 쌍방향적이다.

오답 해설 ①과 ②는 인쇄 매체, ③과 ⑥는 방송 매체로, 모두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

02 편견이 담긴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② 매체에서 정보를 얻을 때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 친구들이 정보의 옳고 그름을 항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3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매체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하는 것이다.

05 (가)와 (나) 모두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인쇄 매체를 활용한 광고이므로, 음성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06 (가)는 달빛카드의 회원 수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달빛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효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가)는 달빛카드로 물건을 많이 살수록 행복해진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07 도법 단락

(	가	)	는	상	품	이	나	서	비	스	에	대	한	정
보	를	여	러	가	지	매	체	를	통	하	여	소	비	자
에	게	널	리	알	려	서	그	것	을	구	매	하	도	록
설	들	하	는	상	업	광	고	이	다.	반	면	(	나	)
는	공	의	성	을	바	탕	으	로	사	회	의	개	발	이
친	선	과	복	지	등	공	공	의	이	의	종	진	이	나
목	적	으	로	하	는	공	익	광	고	이	진	을		

08 ⑦: (가)와 (나)의 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⑦: 신문 기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 따르면 ○○산의 관리는 하나의 행정 구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도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11 이 글에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만 제시되어 있다.

12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여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⑤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쉽게 풀어서 쓴 객관적인 글이므로, 이 글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13 ②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과 ③은 (다)에, ④와 ⑥는 (라)에 제시되어 있다.

14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⑦에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②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 ③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말은 비록 별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심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5단원 통합 최종 점검 모의고사

본문 191~203쪽

01 ④ 02 ④ 03 ③

04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05 ④ 06 ① 07 ⑤

08 ④ 09 전황 소식 10 ④ 11 ② 12 ②

13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제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양을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지내게 해 주세요. /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14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자신의 병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⑦에 해당한다. 15 ③ 16 ②

17 ⑧: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다. ⑨: 쉽게 떠나갈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18 ⑤ 19 ③

20 ⑩: 표제, ⑪: 부제 21 ⑤ 22 해설 참고 23 ③

24 ③ 25 ④

01 (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고, (나)는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벼애감을 노래한 시이다.

오답 해설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나)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고향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 ② (나)의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은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나타낸 것이지만 화자를 나그네로 보기는 어렵다. (가)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모습과는 상관없다. ③ (나)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가)의 고향은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변하지 않았다. ④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은 (가)에만 드러나 있다('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02 4연의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은 어린 누이의 검은 귀 밑머리를 비유한 것으로, 실제 인물이 파도치는 밤바다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린 시절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② (가)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림의 정서가 드러나는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5연의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을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이다. ④ '어린 누이'와 '아내'로 볼 때 화자는 남성으로, 남성의 목소리로 (가)를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애증(愛憎)'은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⑤은 늙은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애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⑥: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모습을 따올릴 수 있다. ⑦: 각 연의 끝에서 반복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⑧: 꿈 많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한 것이다. ⑨: 단란하고 정겨운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05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⑩, ⑪ 작품 속 인물인 '나'는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⑫ '나'는 전황 소식을 명은에게 전함으로써 명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⑬ '나'는 작품 속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심리는 '나'의 관찰이나 추측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06 ㄱ: '나'는 명은이 전황 소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명은의 반응을 감동이라고 오해하여 신이 나서 떠들고 있다. ㄷ: 명은은 전황 소식을 전하는 '나'에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07 ④은 ‘나’가 전황 소식을 파악하는 행동으로, ‘나’가 받은 전쟁의 충격이나 상처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전황 소식을 명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은에게 새로운 전황 소식을 전하며 몹시 신이 난 상태이다. ②: 명은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명은의 불편한 심기와 내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명은의 심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충격으로 인한 명은의 반응을 감동으로 오해하고 있다. ④: ‘나’는 명은이 전황 소식을 좋아한다고 착각했었는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 08 시청 앞 계시판에서 외워 온 벽보 내용을 그대로 읊는 ‘나’의 모습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앵무새에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문맥상 ‘앵무새처럼’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신이 나는 대로 실컷 떠드는 일에 열중하였다 ②: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휘둘러 끌어가 ③: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뿐내는 ④: 뜻밖에 놀랄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져서

- 10 ①(가)는 소설, ②(나)는 시나리오이다.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시나리오인 ②(나)에만 해당한다.

- 11 종소리가 명은의 울음소리를 무동 태웠다고 하는 것은 종소리에 명은의 울음소리가 실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천진한 동심을 학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가)에서 명은의 울음을 자신이 겪은 억울함과 슬픔의 표현이며, ②(나)에서 아름의 울음을 슬픔과 분노,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등 복잡한 심경의 표출이다. ①(가)의 명은과 ②(나)의 아름은 울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해 내며 응어리를 해소한다고 볼 수 있다. ③(가)에서 명은이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를 통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나)에서 대수는 아름이 좀 더 오래 부모 곁에 있게 해 달라는 소원을, 아름은 자신이 죽더라도 부모님이 많이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⑤(나) 아름은 시력을 잃기 전 유성을 보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불꽃놀이처럼 폭발한다고 느낀 후 시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장면은 시각적인 명암·흑백의 대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강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

- 12 ④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기법이다. ②는 동타주에 대한 설명이다.

- 15 이 글은 한문 수필인 기이다. 서술자인 ‘나’는 글쓴이 자신으로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다.

- 16 글쓴이와 글쓴이의 둘째 형님만 ‘나’를 읽었고 큰형님은 ‘나’를 읽지 않았다. 이는 ②(라)의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읽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③(라) 글쓴이는 ‘나’라는 존재가 자신과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오재’를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 18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특정 집단의 주관과 의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신문 기사는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하게 쓰며(평이성) 새로운 사실을 신속하게 전하는 것(신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신문 기사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가)와 (나)에서 남극의 오존층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④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뿐 아니라, 편집 방향, 기사 배열 방식, 어휘 선택 및 논조, 표현 방법 등을 파악해야 한다.

- 19 ④(가)가 아닌 ②(나)에서만 오존층 파괴 물질을 ‘프레온 가스, 할론, 수소 염화 불화 탄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가)는 《OO일보》, ②(나)는 《△△뉴스》의 기사라며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② 오존층 구멍의 크기를 ①(가)는 영국 국토 면적과, ②(나)는 인도 면적과 비교하고 있다. ④(가)는 오존층이 2050년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②(나)는 남극의 오존층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노력과 함께 그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⑤(가)는 영국 리즈대학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공동 연구 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리즈대학의 라이언 널리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21 광고는 대중 매체의 일종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어나 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 22 도법 딥안

이	광	고	는	공	의	성	을	바	탕	으	로	공	공	의
이	익	종	진	을	목	적	으	로	제	작	된	공	익	광
고	이	지	만	,	〈	보	기	〉	는	상	품	이	나	서
에	대	한	정	보	를	여	러	가	지	매	체	를	비	스
하	여	스	비	자	에	게	널	리	알	려	서	그	것	통
구	매	하	도	록	설	득	하	는	상	업	광	고	이	다

- 23 다운 소재를 제조할 때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②(나)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나)의 1문단에서 패딩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거위의 숫자와 그 거위들이 털을 뜯기는 횟수를 제시되어 있다. ②: ‘다운 패딩, 비거니즘, RDS 마크,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요 용어의 뜻을 각주에서 풀이하고 있다. ③: (나)의 2문단에 비건 패션에서 동물성 소재를 합성 소재로 대체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나)의 3문단에 또 다른 문제 개선 방안으로 업사이클링을 택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4 ④은 거위들이 털을 뜯기는 피동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나)의 본문 내용은 비건 패션과 윤리적 의류 구입에 관한 것으로 ‘식생활 개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과’로 연결된 앞뒤 어구가 대등하지 않으며 앞부분의 서술어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상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②의 앞에 ‘비건 패션’의 개념이, 그 부연 설명이 ②의 뒤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두 내용을 바로 연결한 후 그 다음에 ③과 같이 합성 소재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2문단에서는 다운 패딩을 사지 말자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3문단의 첫 문장에서처럼 다운 패딩을 살 경우에 대해 언급하려면 ‘그래도’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5 ④에는 다운 소재와 대비되는 합성 소재의 장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합성 소재의 단점을 소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유도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패딩의 소재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얻는 것일 수 있음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거위 학대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초고의 1문단을 본론의 첫 문단으로 삼아 ④-1의 시작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④-2에 제시된 ‘RDS(윤리적 다운 제품 인증)’ 마크와 그 기준을 안내하며 이를 획득한 의류를 구입하고 권유할 수 있다. ④ ④-3에 업사이클링의 과정과 그 의의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동물과 환경을 위해 업사이클링 의류를 구입하고 제안할 수 있다.

Memo



Memo



Memo



Memo

